

# 맛있는 치즈~ 웃음꽃 피자~

### 임실N치즈축제 국가대표 왕치즈피자만들기·이색 퍼레이드 강화

임실군이 2019임실N치즈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임실군과 임실N치즈축제 제1위위원회는 올해 임실N치즈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맛있는 치즈~ 웃음꽃 피자~'라는 슬로건을 필두로 축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실군이 2019임실N치즈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또한 국가대표 왕치즈 피자만들기와 우유드림 행복드림 퍼레이드, 어린이 놀이터 등 프로그램을 작년보다 한층 더 다양하게 연출해 선보일 전망이다.

특히, 축제 대표프로그램으로 작년에 한차례만 진행되었던 국가대표 왕치즈 피자만들기는 올해는 두 차례로 확장 진행하여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피자만들기 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렸다.

넓은 분위기로 연출해 관광객이 머물면서 숙성치즈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이외에도 임실N치즈축제 개최 이래 처음으로 글로벌존 구성을 계획하여 축제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노력하는 한편, 지난 4월 13일 선종하신 임실치즈의 아버지 지정환 신부님 추모관 등을 선보일 전망이다.

지난해 네 번째 개최된 임실N치즈축제는 3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30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효과를 내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유망축제로 선정되지 불과 1년 만에 우수축제로 승급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임실N치즈축제는 작년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더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선사할 것이라며 "볼거리와 먹거리를 풍성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서 관광객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안겨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양파 수출로 농가시름 덜어준다

### 대만에 7월말까지 1740톤 계약... 24일 96톤 첫 선적 시에선 양파 팔아주기·소비확대 운동 나서

남원양파가 24일 울들어 처음으로 대만으로 수출돼 품종과 이에 따른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게 됐다.

남원시와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박해근)은 국내 양파가격 하락을 막고 유통·판매망 다양화를 위해 대만 바이어와 수출협상을 벌여 7월 말까지 1740톤을 남원농산물공동브랜드 '춘향애인' 상표로 수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수출을 위해서도 바이어와 협상을 벌이고 있어 조만간 좋은 소식이 기대되고 있다. 또, 국내 대형유통 및 도매시장거래처, NH무역 등 수출업체들과도 활발히 가격과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남원시는 내달 초 남원시청에서 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파 팔아주기와 소비확대 운동을 전개해 양파농가의 고통을 함께할 계획이다.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우선 남원농협산지유통센터와 춘향골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각각 48톤씩 96톤(4800마/20kg)을 공동선별 해 24일 수출 기념식을 갖고 선적했다.

이번 양파 수출은 남원농산물 지리산 고랭지에서 생산돼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데다, 신뢰와 정성을 바탕으로 꾸준히 바이어들과 교류해 온 결과이다.

특히, 남원농협은 지난 2014년 남원농협 양파공선출하회를 조직해 남원

농협 육묘장에서 선별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고죽동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준공하고 최신식 양파선별기를 도입해 대량생산·공급 체계를 확보했다. 남원시는 양파를 비롯한 파프리카, 배, 포도, 딸론 등 농산물 수출확대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3억5000만원과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올해 지원한다.

한편, 남원에서는 올해 200여 농가에서 양파 97ha를 재배해 5680톤을 생산, 국내 시장과 농협에 출하하고 나머지 물량은 저장할 예정이다.

양파 수출 기념식에는 이환주 남원시장을 비롯해 윤지홍 남원시의회의장, 김현길 남원양파공선출하 회장, 이기열 남원농협장, 박노현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장, 박해근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남원시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농산물 수출확대를 기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이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발맞춰 치매환자·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통합관리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구축했다.

# 치매국가책임제 통합관리 서비스 선도

### 임실치매안심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개소식

임실군이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발맞춰 치매환자·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통합관리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구축했다.

군은 최근 임실치매안심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은 심 민 군수와 이 용호 국회의원, 한완수 전북도의회 부의장, 군의회 신대용 군의장,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치매안심센터는 임실을 호국로 1680에 위치하며, 연면적 850㎡ 규모로 치매 환자쉼터, 가족 카페, 상담실, 검진실, 교육실,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의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다.

주요사업은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치매 조기검진과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등이다. 또한 치매예방프로그램과 치매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 조호물품 지원 등도 제공한다.

특히 환자와 가족들에게 체계적인 치매 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한편 치매 고위험군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치매환자쉼터 등 치매와 관련된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및 불안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실군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조기검진 일제조사를 통해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치매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매 아 리

### 임실군, 민원봉사과 주성현 주무관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임실군 민원봉사과 주성현 주무관이 '2019년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24일 군에 따르면 주성현 주무관은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국토교통부 주최로 실시한 전국대회에서 '지적재조사사업 모바일 활용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적재조사사업 모바일 활용방안'은 모바일메시지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진행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바쁜방 시스템을 연동하여 필지 정보를 안내한 뒤 전자서명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이 주관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자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 수법사례 등 우수사례 14편이 치열하게 경쟁을 펼쳤다.

주성현 주무관은 "오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군민편의를 극대화하고 수준 높은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 봄철 조림사업 230ha 완료

남원시는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조림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봄철 조림사업은 10억원을 들여 230ha에 편백, 상수리, 소나무 등을 식재하였다. 양질의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성 조림 120ha, 산사태·산불·병해충 및 태풍 등의 피해지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사전 예방을 위한 재해방지조림 15ha, 편백나무피해지에 복구조림 66ha를 완료했다.

또한 도시 내·외곽 산림, 생활권 주변 유휴토지, 공공녹지 등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심기를 실시하였으며, 마을 경관과 어울리는 녹색 공간조성 사업을 실시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을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남원시는 봄철 조림목이 잡초 등에 치여 고사하지 않도록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가을철에도 미세먼지 저감조림사업 등을 시행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조림사업은 아름다운 녹색 도시 건설뿐만 아니라 수원함양, 온실가스 흡수, 대기환경개선 등 공익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첫걸음"이며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활착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코레콘 종묘, 우수한 고추 종자 개발 박차

순창군은 고추 종자개발을 위해 종자사업의 국내 대표기업인 (주)코레콘과 세계종묘를 방문하는 등 공동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고추는 재배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소득 면에서 여전히 고소득을 보장하는 작물로 많은 농가에서 재배하는 품목 중 하나다.

하지만 매년 높아지는 이상기온으로 고추 생육환경이 나빠져 탄저병과 바이러스 등에 의한 병충해가 심해지고 있어 무엇보다 우수 종자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군은 국내 종묘회사들과 병 저항성이 강한 품종 개발을 통해 안정

적인 재배와 수확이 가능토록 우수 품종개발에 나섰다. 단순 병충해에 강한 종자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기능성 품종개발을 중점을 두는 한편 향양노를 비롯한 고기능성 고추 품종 등 지역 특화 품종에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농업기술센터 1층 내 토양검정실과 조직배양실을 새로 단장해 종자연구실을 구축하고 연구실에 박사급 연구진을 두고 종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군은 종자 연구 관련 기반시설인 장류 종자센터를 설립해 본격적인 고추 종자 연구에 매진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